

초등부 우수상

도서명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민*한

이 책을 교장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읽게 되었다. 제목을 봤을 때 책의 내용이 동네에 흑등고래가 살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흑등고래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나쁜 짓을 하는 흑등고래인가? 궁금했다. 이왕이면 착한 흑등고래의 이야기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잔잔하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해서 나쁜 흑등고래라면 마을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었다. 흑등고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에 나오지 않고 주인공인 도근이에게 도근이 아빠가 나중에 같이 보자고 한 것이다. 아마 도근이와 도근이의 아빠를 상징하는 것 같다. 학교에서 아빠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있었다. 도근이는 망설임도 없이 하늘을 나는 흑등고래를 크게 그린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 상도 받는다. 표지에도 하늘을 나는 흑등고래 그림이 있는데 아마 도근이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의 내용은 주인공 도근이와 도근이의 단짝 찬영이가 서로 싸우다 여러 사건을 겪으며 다시 친해지는 이야기이다. 도근이의 아빠는 도근이의 12살 생일에 돌아오신다고 하고 바다로 모험을 가셨다. 찬영이의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유명한 구두닦이였다. 도근이는 아빠한테 잠수를 배워서 잠수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찬영이는 이런 도근이를 부러워했다. 도근이의 12살 생일에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서 도근이는 슬펐다. 그런데 찬영이가 친구들에게 도근이의 아빠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다가 도근이가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에 아빠를 드리려고 모은 돌멩이를 가지고 거친 방과제로 갔다가 바다에 들어간다. 바다에 빠진 도근이를 찬영이가 구하고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게 된다. 나도 몇 년 지기 단짝이 있는데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친해진 적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둘이 같이 도근이의 축구화를 찬영이가 자신의 개한테 물어뜯으면서 놀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다. 나도 친구가 게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 친구와 싸우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다시 친해졌다.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싸웠을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서로 배려를 조금씩만 더 해서 더욱 더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찬영이가 도근이와 동네 벽에 흑등고래를 그리며 다시 친해진 장면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인상 깊은 말이 있었다. “달리기

에서 지는 사람이 찬영이네 강아지 만두와 같이 자는걸로, 어때?” 라는 말이었다. 그 이유는 서로 실없는 농담과 내기를 하면서 장난치는 게 둘이 더 친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감동 받았다.

이 책은 나의 단짝에게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책을 읽고 친구를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단짝도 책을 읽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초등부 장려상

도서명 : 강아지똥

박*서

내가 신발을 새로 산지 몇 일이 되지 않았는데 개똥을 밟고 말았다. 개똥은 질퍽하고 구리 구리한 냄새가 나고 끈적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데 책 이름이 강아지똥이라니...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똥은 더럽고 냄새나고 더구나 바로 조금 전에 싸놓은 똥은 냄새도 그 모양도 끔찍하다. 그리고 쓸모도 없다.

누가 이 더러운 강아지똥을 쓰겠냐고... 생각했는데 강아지똥이 더러운 것만은 아니라는걸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다.

강아지똥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참새가 “똥똥똥! 에그, 더러워... .” 라고 말해 자기가 똥이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강아지똥에게 더럽다고 말한 참새와 “모두 찌꺼기뿐이야.” 라고 말한 닭과 병아리가 “안녕!” 이라고 인사하고 굳이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강아지똥의 기분을 다시 나빠지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3학년 때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여러 문제를 풀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 수학 시험을 보고 온 날 잘 보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엄마가 “수학 문제가 생각나면 잘 본거야. 걱정하지마”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시험 문제가 생각나면서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아지똥에게 흙덩이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소달구지 아저씨가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아가는 모습에서 강아지똥이 희망을 가진 것처럼 누군가가 희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강아지똥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민들레였다.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자신이 필요하다는 기쁨에 민들레 짝을 힘껏 껴안아 민들레의 살이 되어주었다.

강아지똥은 아직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했다.

하찮아 보이는 강아지똥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준 민들레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강아지똥이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해져서 나도 덩달아 행복하다.

사람들이 강아지똥이 껴안아 준 민들레가 이쁘다고 사진을 많이 찍으러 왔으면 좋겠다.

학생부 우수상

도서명 : 어느날 내가 죽었습니다

한*경

나는 이 독서록을 일기 형식으로 쓰겠다.

3월 13일 (목)

“도경아, 선생님이 도경이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서 생각나서 가져왔어.”

선생님이 건네주신 종이의 [쓰는사람]이라는 큰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교실 앞에도 붙어 있는 종이다. 그리고 이건 나만을 위한 한 장이다. 뒷자리의 나에게까지 선생님이 직접 가져다주셨다. 아, 다른 공부 할 것도 많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독서록은 또 언제 쓰냐고요. 나는 부담스럽고 쓰기 귀찮은 마음에 아무렇게나 방금 전에 다 읽은 책으로 독서록을 쓰기로 결정했다.

3월 14일 (금)

집에 오니 어제 주문한 책이 도착해 있었다. 나는 씻고 나서 독서록을 쓰기 위해 책을 훑어봤다. 정말 신기한데, 혹시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건가? 이 책에 나오는 일기장의 첫 일기 날짜가 3월 13일 (목)으로 되어 있었다. 선생님께 권유를 받고 이 책으로 독서록을 쓰겠다고 어영부영 정한 날과 심지어 요일까지 일치하다니!

그러고 보니 주제가 인생책인데 책을 너무 쉽게 고른 건 아닐까하는 찝찝함도 있었다. 그러나 인생책을 사람이 살아있기에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최고의 인생책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될 것이다.

3월 16일 (일)

학교 도서관에서 제목만 보고 호기심이 동해, 이 책을 읽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섬뜩한 말이다. 재준은 일기장 첫 장에 이 말을 써 놓고 얼마 뒤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그 후 재준의 엄마가 보고 깜짝 놀라 단짝이었던

유미에게 일기장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재준의 엄마는 아들이 죽음을 예견한 건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 것인지 온갖 상상이 들어 마음이 끔찍했을 것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재준이는 그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놀이를 한 것뿐이었다. 삶을 더 재미있고 감사하게 살기 위한 놀이였지만, 지금은 정말 죽어 버렸다. 유미는 일기장을 읽고 알게 된다. 타 볼 생각도 안 해봤고 빠른 속도를 무서워하던 재준이가 오토바이를 탄 건 좋아하는 여자애의 오토바이 타는 남자가 멋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재준이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헬멧을 쓰지 않는 행위를 범했고, 결국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

재준이는 헬멧을 쓰지 않았지만 헬멧을 썼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나는 사람의 삶이 우연과 운명이 버무려져 있는 슬라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파츠 어떤 향료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슬라임의 형태와도 같은 급변 속에 살고 있다. 재준이, 유미와 동갑인 나의 삶 또한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못하겠다.

3월 17일 (월)

유미와 재준이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 유미가 재준이네 반으로 전학 오고 나서 부터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열하고 비겁한 담임에게 할 말 다하는 유미를 보고 재준이는 멋있다고 느끼며 친구하자고 고백한다. 유미는 내가 보기에 확실하게 용감하고, 의리 있으며, 강강약약인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이 피우고 싶어 피우는 담배에 다른 핑계를 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재혼하여 동생과 성씨가 다르다는 현실에 나약함을 보일 때 나는 조금 느끼함을 느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누구는 아빠가 들은 커녕 한 명도 없고 엄마 성씨를 뺐어도 남들의 알팍한 시선 따위는 무시하고 잘만 산다.

3월 26일 (수)

재준이는 참 괜찮은 삶을 살다 갔다. 내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재준이의 꿈은 희극 배우였다. 채플린 같은. 재준이처럼 수줍음 잘 타는 애가 왜 희극 배우가 하고 싶었을까. 그만큼 재준이에게 웃음과 즐거움이 큰 의미였겠지. 나도 웃는 게 좋다, 즐거운 게 좋다. 재준이는 채플린을 좋아했다.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좋아했다. 이 말에도 크게 동의한다.

3월 27일 (목)

유미는 재준이의 일기를 읽어 나가며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다 이내 포기한다. 삶의 의미조차 아직 알지 못하는 나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다.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가지는 것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할 뿐. 죽은 후에 의미를 부여할 대상이 없는데 죽음에 의미가 있을 리가 없었다.

3월 28일 (금)

오늘, 선생님이 부르셔서 교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지 궁금했다. 선생님은 나를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시겠다고 이천에서 3년 이상 살았냐고 물어 오셨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 쉬는 시간에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오해를 하고 독서록 쓰기를 권유하셨을 때는 솔직히 잘못 걸렸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 주시는 관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속에 선생님의 나에게 대한 호감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의 의미 그런 거 모르겠고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좋다고. 살아간다는 게 즐겁다고.

3월 31일 (월)

선생님께서 오늘 장학금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대상이 아니게 됐다고 하시며 다른 장학금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크나큰 애정에 감사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나는 공모전 쓰는사람에 참가할 수 없었다.

학생부 장려상

도서명 :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임*지

학교에서 읽을책을 찾다가 소설인데 예전에 한번 제목을 들어본 책이고 표지가 예뻐서 내용이 재밌고 단어 하나하나가 예쁘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 책을 읽고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 제목을 봤을때는 내용이 딱히 짐작이 가진 않았다. 편의점이 바다와 연관성이 있는 것 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책은 마치다 소노코 라는 일본 작가가 지은 책이고 일본작가가 지은 책은 처음이라서 읽을 때 우리나라와 다르게 많아서 신기하기도 했다.

이 책의 내용은 고가네무라점이라는 일본에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주인공 미쓰리와 다른알바생,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 가장 인상깊게 봤던

내용은 가게에 매일 오시는 투덜거리지만 마음은 따듯하신 우라타 할아버지가 계신다. 하지만 오늘은 오시지 않으셔서 가게 직원들이 전화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 가게 직원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가게 점장님이 직접 우라타 할아버지네 집에 가기로 했다. 직원들은 밖에서 들리는 구급차 소리를 듣고 더욱 긴장하게 됐다. 몇 분뒤점장님께 연락이 왔다. 받아보니 할아버지께서 집에 쓰러져 계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장님 덕분에 우라타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실수 있었다. 다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미야라는 한 직원이 울음을 터트렸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일이냐고 노미야에게 물었고 노미야는 고등학생때 자신과 친했던 친구가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노미야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고 그 친구는 병이 악화되어 같이 약속했던 레슬링도 할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후회를 안하게 살겠다고 다짐 했는데 이번에 우라타 할아버지께서 기분이 안좋아보여서 노미야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하시면서 말하면 아프니 조용히 하라고 했다. 노미야는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보고 자신도 화가나서 그냥 입을 닫고 있었는데 지주막하 출혈 전조 증상이 두통이란걸 알고나서 또 같은 실수를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바보같다면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다른직원들은 우라타 할아버지가 원래 화가 많으신 성격이라 그럴수 있었다며 위로를 했지만 노미야는 자신이 최악이라 말하고 가게를 뛰쳐나갔다. 금세 사라진 노미야를 찾기위해 고민하다 미쓰리는 전에 곤란하거나 불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무엇이든 맨이라는 남자에게 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다. 무엇이든 맨은 자기가 그렇게 전문이라며 5분안에 노미야를 찾아냈다. 나는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다. 나도 남이 아플 때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긴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노미야에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항상 안그래야지 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나 자신에게도 짜증이 난다. 나도 노이마처럼 화 안내야지, 짜증 안내야지 이런 사소 한 것이라도 안해야지라고 다짐은 늘 하지만 실천이 잘 되진 않는다. 내가 만약 노미야 였어도 노미야와 별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우라타 할아버지네 집에 고민도 하지 않고 간 시바 점장님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일하면 힘들고 지칠때가 많을텐데 우라타 할아버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시바 점장님은 착하고 잘생겨서 가게안에서 인기가 좋다. 나도 시바 점장님을 닮고싶다는 생각도 했다. 나의 성격은 귀찮음이 엄청 많은 성격이라 내가 점장이었다면 솔직히 집까지 가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점장에 성격이 귀찮음이 많았다면 나처럼 우라타 할아버지네 집에는 안갔을 것 같다. 그래서 시바 점장이 할아버지네 집에 가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계속 쓰러져계셨을 것이고 그러면 큰일이 날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도 생각해봤다. 이 장면을 보고 난뒤에 반성도 하면서 나의 행동도 천천히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사소한거부터 고쳐 나가면 나중엔 큰것도 고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 노미야처럼 후회할일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후회 할 일이 없다면 내 인생도 행복해 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남이 힘들어보이면 도움을 줘보기 이다.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을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책 내용처럼 크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다. 평소엔 안해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만약 자기가 노미야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친구들은 나같이 행동할지 다르게 행동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 나 혼자 짜증나있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시바 점장님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점장님은 사람을 잘 챙겨주고 걱정도 잘해준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는다. 부모님은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모르는 것 같다. 원래 다른 사람이 좋은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주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짜증부터 나오나는 왜 안되지 라는 생각만 하게되서 친구들이 좋은일이 있어도 성의없게 대답을 할때가 있다. 그래서 둘다 어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며칠전에 나 포함 3명이서 친구들과 동아리를 지원했는데 나만 떨어졌다. 너무 억울해서 짜증부터 또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축하를 해줘야하는데 짜증나서 친구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해줬던 것 같다. 그래서 후회도 되고 약간 미안했다. 요즘 이런 모습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혼자 갑자기 우는게 일상이 되었다.그래서 또 집에와서 다짐을 했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아무 잘못없는 친구들에게 화 내지 않기로 다짐 했다. 근데 막상 학교에 가면 친구랑 나랑 자꾸 비교 하게 되고 그럼 또 짜증이 나서 울고 있었다. 남들 앞에선 밝은 척을하지만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울에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나도 빨리 성격을 고치고 싶는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다. 마치 내 모습이 울고 있는 노미야 같았다. 사춘기라고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질투같았다. 나는 안되는데 친구들만 되는게 억울해가지고 방에서 혼자 조용히 울고 있는 내모습이 싫다는 이런 모습도 노미야 같았다. 그래서 이 장면과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제일 공감이 많이 갔던 장면이었다. 앞으로 끈기있게 노력해서 성격을 고치고 예전처럼 웃으면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물론 지금도 어느정도는 괜찮지만 내 마음이 힘들어서 고치고 싶다. 힘들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책은 많은 감동을주고 이장면 말고도 재밌는 장면은 많아서 좋았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책을 또 읽고 싶다.

일반부 최우수상

도서명 : 스토너

임*주

2020 년 여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나는 한창 늦은 취업으로 인해 열등감이 뻗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대학 동창들이 SNS 에 올리는 멋진 사진들만 봐도 질투심과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바짝 오그라들었다. 이 시기에 우연히 만난 소설 <스토너>는 불안해서 미친듯이 마음이 쉽없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차분히 잠재워준 책이었다.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처럼 화려한 백만장자도 아니고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 콜필드처럼 뼈뺀 사춘기 반항아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주인공들의 옆에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봐 주는 조연에 가까운 성품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토너는 결코 시시한 조연이 아니다. 그는 절대로 삶 속의 중요한 선택을 남에게 맡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남의 성과를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미주리 주의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자란 그는 대학에서 듣게 된 영문학 수업을 통해 문학과 깊은 애정에 빠져버린다. 결국 그는 영문학으로 전과를 선택하고 부모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후 영문과 교수가 되어서 대학과 자신의 삶을 둘러싼 어려움을 담담히 마주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는 흘러간다.

교수로서 스토너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학과 영문학을 우직하게 붙들고자 한다. 대학원 동기인 핀치와 매스터스가 전쟁을 앞두고 입대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대학에 남기로 한다. 또한 핀치가 스토너에게 영문학 학과장 자리를 제안했을 때도 그는 조교수로서 머물기를 선택한다. 심지어 자신의 첫사랑과의 결혼이 집을 감옥처럼 느끼게 만들 때도 그는 말없이 아내의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고 영문학을 연구하는 그가 정작 일에 쏟은 열정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순간을 볼 때마다 나는 고구마를 억지로 삼킨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스토너가 묵묵히 교수로서 일하는 모습에서 나는 스토너가 잔하게 느껴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부지런하게 돕던 스토너는 영문학 연구에 전력으로 임한다. 또한 스토너는 술이나 담배같이 중독적인 요소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라 앉히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인 대학 사무실에서 애정 가득한 책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고요한 침묵에서 위로를 경험한다.

또한 자신이 아내보다 더 열심히 돌본 사랑스러운 딸과의 관계에서 격려를 받는다. 그러나, 스토너는 한 대학원생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대학 사이에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버

릴 위기에 처한다. 심지어 아내까지 그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그녀에게 이별한 고한 스토너는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와서 생의 끝자락으로 걸어 나가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책이 내 안의 불안감을 재워준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줄거리와 비주얼이 담긴 각종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에 피곤함을 느꼈던 나에게 <스토너>는 읽는 내내 차분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나는 작가가 문장을 통해 그려 나가는 스토너의 책에 대한 애정을 보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었다. 나는 화려한 볼거리 대신 하얀 바탕에 쓰여진 까만 글자들의 세계에 푹 빠져서 집중하는 시간 동안 잠시나마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슬론의 시선이 윌리엄 스토너에게 되돌아왔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300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 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스토너는 그 순간부터 영문학에 사로잡혀 평생을 연구에 몰두하며 살았다. 반대로 영문학 때문에 학과장 로맥스와 다툰 이후로 그의 입지는 매우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지탱해준 동료들과 사랑스러운 딸 덕분에 영문학 교수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과제를 던져준 지도교수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슬피 울었다. 이렇듯 한 가지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벽의 버스 운전수분들, 매주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미화원 분들, 아침 7 시에 가게를 여는 카페 직원분들, 그리고 매일 줄린 눈을 비비며 출근하는 나의 남편과 같이 내 주변의 모든 ‘스토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일반부 우수상

도서명 : 기억을 파는 가게

박*하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4학년 여름방학 정신건강간호학II 병원 실습 중 만난 환자분 덕분이다. 직접 추천해 주신 건 아니지만 환자분과의 일화에 감정의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이 책을 마주치게 된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을 사고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이 책의 주인공 채아리는 돌아가신 아빠, 반지하 집, 엄마의 직업이 세신사라는 것을 소문낸 친구 정민이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 기억을 파는 가게 메멘토이에 방문한다. 일방적으로 친구들에게 엄마의 직업을 공개한 정민이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엄마의 재혼 소식까지 받아들이기 벅찼던 아리는 김치찌개를 옹기다 화상을 입는다. 모든 상황이 다 싫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 기억을 지웠지만 결국 기억을 되찾는 내용이다.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를 한두 명이 알게 되어도 창피하고 힘든데 반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밝혀진 아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책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아리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라 그저 안아주고 싶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말이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뭐든 척척 잘 해내는 동기들을 보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아픈 기억 또한 너의 모습이니까” 라고 말해주어서 창피하기만 했던 기억들이 편안하게 기억될 수 있었다. 아직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문득 과거의 기억들로 울적해질 때 이 책의 구절을 떠올려야겠다. 간호학과이다 보니 “항체, 수두” 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소설책에서 그것도 기억을 항체와 수두에 비유해서 신선하게 느껴졌다. 내가 가진 기억들이 하나의 번역기능을 한다면 앞으로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나도 이렇게 말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때는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고 그때의 기억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전공 시간에 학습한 퀴블러 로스의 죽음 이론 중 첫 단계가 부정이라고 한다. 내가 나쁜 기억들을 빨리 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대면했을 때 보통 그것을 부정하거나 머릿속에서 지운다. 죽음 이론 첫 단계 부정처럼 말이다. 하지만 난 이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라는 말처럼 뭐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과거의 힘들었던 일들도 나의 일부고 그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기에 이질적이지만 난 더 많이 아프고 싶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처럼 말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근거중심의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누구보다 당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애써 잊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소중한 기억들을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야겠다. 대학교 4년 동안 술하게 많은 조별 과제, 동아리 부장, 봉사활동, 공모전, 제비뽑기로 얼떨결에 맡게 된 학과 대표,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간호사 취업난을 겪었다. 분명히 성취감도 느꼈고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는데 나를 무너지게 한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있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그때의 기억으로 침체되거나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더 넓게 보면 24년이라는 인생에서 만난 끔찍했던 교사, 성범죄자를 옹호하던 교회 사람들 등 나와 다른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던 시간, 사건사고의 희생자를 보며 마음 아파하던 날들이 떠오른다. 어쩌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개의치 않고 사회생활

을 하기 위해서 사회의 이면을 한 번에 맞닥뜨리면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각 생애 주기별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처럼 제시해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젠 가끔씩 문득 떠올라도 두렵지 않다. 슬프지도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책을 읽게 되어 영광이라고 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올해 7월에 입사 예정이다. 내 고향 이천을 떠나 서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의연하게 대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는 꼭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간 나를 성장시켜준 이 세상에 영광을 돌린다.

일반부 장려상

도서명 :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권*봄

완연한 봄이다. 아침,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하고 신발 끈을 동여맸다. 두 달 전부터 다시 시작한 달리기를 위해서다. 2년 전까지 운동이라면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던 나였다. 흠뻑 땀을 빼고 나면 머릿속 그득했던 잡념이 사라지고 홀가분해지는 맛에 달리기를 즐겨 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유로워질 법했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오늘은 이래서, 내일을 저래서 하는 핑계들이 몸 쓰는 일을 미루게 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최근 호되게 앓고서야 그간 내가 얼마나 몸에 소홀했던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걷기였다. 처음부터 달릴 수는 없었으니까.

뛰든 꾸준히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몸에 운동 리듬을 각인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걷기가 밥 먹기처럼 겨우 안착이 되었을 때 달리기를 시도했다. 일단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하며 조금씩 거리를 늘렸다. 달리고 나면 개운했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이거 꼭 해야 하나?’ 하는 갈등은 계속되었다. 전처럼 가뿐하게 달릴 수 없다는 좌절감이 의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을 무렵, 책장 한편에 꽂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책은 욕심과 의욕만 앞세운 나의 달리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얼마나 잘 뛰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지속할 수 있는지’였다.

일주일에 두어 번 달리기 할 무렵, 피가 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으니

까, 또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쁘니까 하면서 하루 이틀 미루고 싶어졌다. 그때 하루키의 말이 나를 다잡았다.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p.19) 낯선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초반엔 몇 배의 힘이 든다.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늘어져 있던 몸을 깨워야 하는 달리기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뛸 수 있을지 말지의 첫 번째 고비에서 나는 멈추지 않기 위해 하루키의 충고에 따라 시간을 아침으로 정하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달리기’를 선택했다.

매일 뛰면서 1km였던 거리가 2km로 늘어나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그렇지. 내 몸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며 있는 힘껏 4km를 달린 날이었다. 구간 기록이 짧아졌다는 기쁨도 잠깐, 무리한 탓에 종일 높은 피로도는 물론이거니와 다음날 일어나기조차 힘이 들었다. 당일 아침 지친 표정으로 알이 밴 종아리를 부여잡은 내게 하루키가 말했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써나가며 의식을 집중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정보를 신체 시스템에 계속해서 전하고 확실하게 기억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그 한계치를 끌어올려 간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수치를 살짝 올려간다.” (p.122) 하다못해 기계를 사용하는 데도 예열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몸을 과신했으니,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날 나는 달리는 내내 밀려오는 근육통 탓에 평소 달리던 거리의 절반밖에 뛰지 못했다. 자극하고 지속하는 일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의 제일은 ‘충분한 기다림’이라는 걸 배웠다.

처음으로 5km를 완주하던 날, 온갖 생각들과 싸워야 했다. 5km를 목표로 한 날이었기에 마음먹고 달리기 시작했음에도 ‘4km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마음의 소리가 수없이 들려왔다. 마지막 바퀴에서는 ‘1km가 이렇게 길었나?’ 지루하고 고되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순간 떠오른 하루키의 문장이 나를 계속 뛰게 했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소설 쓰기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p.126) 그러고 보니 나도 그랬다. 아침 달리기가 주는 작은 성취는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사소하게 느껴졌던 엄마라는 역할은 꼼꼼히 자신을 관리하는 자부심으로 다져졌고 달리기로 시작한 규칙적인 일상이 들쭉날쭉했던 몸과 마음에 평형감을 일깨워주자 조급했던 마음이 누그러졌다. 거창하진 않았지만 매일 달리기가 주는 분명한 변화가 내게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사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2주 안에 예전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2년을 쉬었지만 내 몸을 믿었기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1km를 더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나이와 비례하는 것 같았다.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실망이 컸다. 그런 내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글 쓰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p.128) 달리는 일과 삶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의 말은 ‘노력하는 삶’, ‘자신이 주인인 삶’ 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었다. 스무 살이건, 반백 년의 나이 든 간에.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은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아닐까?

나는 처음 이 책에서 ‘조금더 쉽게 달리는 법’ 이라든가 ‘나이가 들수록 달려야 하는 이유’ 같은 이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는 달리는 소설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가 보여준 달리기를 통한 꾸준한 연습, 알 듯 모를 듯 조금씩 늘려가며 한계치를 올리는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그 반복과 지속성의 진리가 매일 아침 주저앉고 싶은 나를 일으켜주었고 느리지만 천천히 삶을 누리는 법을 안내해 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힘겨움 속에서도 계속 달릴 수 있었던 건 고비마다 나를 달래준 책 속의 문장들 덕분일 것이다. 나는 이 책을, 그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 부르고 싶다. 집을 나서려 문을 열자 바람이 차갑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몸이 움츠러들지만 더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나에게는 매일 아침 함께 달릴 하루키씨가 있으니까.

군장병부 최우수상

도서명 : 소년이 온다

정*기

논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다. 같은 생활관을 쓰던 동기 한명이 환희에 젖은 표정으로 나를 찾아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했다. 전날까지 <훤>을 함께 읽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였기에 이 상황이 더욱 기쁘고 놀라웠다. 게다가 나에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노벨상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 6년 전 우연히 집어 든 한 책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나에게

무엇보다도 무겁고 심각한 문제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허상적이고 유치해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으므로 지금껏 부모님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군 생활중 우연히 만난 이 기회를 통해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한다. 그것이 인생책의 ‘독후감’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소년이 온다>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교내 백일장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였다. 한강이 누군지도, 어떤 책인지도 모른 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내내 알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진한 전율이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답답해지는가 하면 잘 울지 않는 나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기도 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뿌연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와 등장인물 간의 경계가 멀어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 친구들과 놀 때면,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치며 깔깔대던 동호가 떠올랐다. 엄마와 나들이를 할 때면 엄마 손목을 붙잡고 햇볕이 드는 곳으로 이끌던 동호가 생각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면 투쟁의 트라우마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은숙과 선주를 생각했다. 그것이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므로, 한참 예민하고 여리던 열일곱 살의 나는 죽은 혼들을 기꺼이 내 삶에 동반시키기로 했다.

알면 알수록 분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 숨 쉬던 이 땅 위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니 그보다도 그 일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이. 우리 민족의 잘못은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주에 아픔을 그들만의 아픔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것만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사람과 그 일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내 또래 중에는 그 날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어릴 적부터 술하게 들어온 격언이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나 해결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정부에 따라 그 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규 교과 과정에서도 적게나마 광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사회와 주변의 분위기가 그랬다.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의 입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과 상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아래 그 일을 애써 묻어버린 것만 같았다.

당시의 나는 나 하나의 각성과 분노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한편 어떻게 하면 나의 주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관철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가 한참 <기생충>이 여러 시상식을 휩쓸고 다닐 때였는데, 봉준호 감독의 너무나도 한국적인 영화와 인터뷰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힘은 교과서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에 있었다. 돌이켜 보면 내가 이토록 무언가에 감명받고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한강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날부로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어 나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전,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보며 나는 나의 오래전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누군가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던 그 광주의 이야기는 이제 온 신문과 방송, 주변인들의 말소리에서 들려왔다. 한강은 위대한 노벨상 수상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언어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차근차근 읊조렸고 전 세계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년이 온다>는 몇 년 만에 역주행하여 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인터넷은 <소년이 온다>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한강은 죽게 된 동호가 80년 5월에서부터 우리에게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오는 소설이기를 바라며 책의 제목을 <소년이 온다>로 했다고 말했다. 예전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 것만 같다. 과거가 현재로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역시 예술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적같은 일이었다.

한강의 부름으로 여기까지 온 어린 혼들은 이제 한강으로 인해 구원되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우습게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내가 6년간 바라온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강의 이번 수상이 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까닭이다. 양심의 가책이란 것이, 누군가의 삶과 원망을 등에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내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해온 시간은 그만큼 나의 삶에 깊이를 더해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었다. 6년 전 내가 우연히 집어 든 책이 다른 책이었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인생 책이라는 주제에 주저 없이 이 책을 고를 수 있었다.

이 독후감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그들을 떠나보내려 한다. 여름은 싫지만 여름밤은 좋았던 동호가 다음 생애는 꼭 멋진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대는 꼭 누나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자식의 못다 한 소명을 평생을 바쳐 대신 이루어낸 동호 어머니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군장병부 우수상

도서명 : 이방인

이*호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통찰한 철학적 선언에 가깝다. 주인공 뫼르소는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감정적 규범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슬픔을 보이지 않고,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사회는 그를 단죄한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삶의 부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특히,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나의 처지에서 뫼르소의 태도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군대는 강한 규율과 조직적 질서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공간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감정 표현의 방식이 강하게 적용되며, 집단적인 가치관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와 조직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딜레마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는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이방인』이 군인으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부조리란 무엇인가?

부조리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현실이 조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를 찾고자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방인』에서 뫼르소는 오직 감각적인 경험과 순간적인 충동에 충실한 인물이다.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적 반응을 억지로 표현하지 않으며, 삶을 특별한 의미로 포장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유로 그가 ‘비정한 인간’으로 규정되고, 법정에서는 그의 범죄 행위보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은 태도’가 더욱 비난받는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나는 내가 속한 군이 떠올랐다. 군 조직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

선택 수밖에 없으며, 군인에게서는 강한 책임과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 생명을 다루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고민과 감정을 떨쳐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군인으로서 마주하는 부조리의 한 형태일 것이다.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존재한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며, 이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부조리를 마주한다. 명령의 정당성을 고민할 여지가 없는 상황, 개인적인 신념과 충돌되는 결정, 도덕적 갈등이 생기는 순간 등 군인의 삶은 단순한 복종의 연속이라 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군인은 부조리를 누구보다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경험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의 의미

카뮈는 『이방인』을 통해 부조리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이다. 피르소는 처음에는 사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존재가 충돌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던 피르소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구원을 갈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맞이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 피르소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그가 더 이상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삶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오히려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다.

군인의 삶에서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때때로 명령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전우를 잃거나 전장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며,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관을 흔들여 놓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다. 피르소가 죽음을 앞두고도 담담했던 것처럼, 군인으로서 우리는 현실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뫼르소들

오늘날 우리는 과연 뫼르소와 얼마나 다를까? 사회는 여전히 감정을 강요하고,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만든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무례하다’고 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방인일지도 모른다.

특히, 군대에서 우리는 집단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각자의 내면에서는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품고 있다. 작전 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간이 된다.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방인』은 우리에게 삶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부조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억지로 의미화하려 하지 않으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뫼르소가 죽음을 앞두고 완전한 평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이방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삶의 태도이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나는 이 부조리 속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군장병부 우수상

도서명 : 작별하지 않는다

이*현

오래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벚꽃이 환하던 봄이었던가. 집 앞 건널목을 건너다가 미숙한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젊은 나이의 외할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말씀도 건네지 못하고 아까운 생을 접어야만 했다. 어린 나를 업고 달력에 쓰인 숫자와 글자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해도 웃으면서 감탄하는 어른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할머니를 보내드린 지 1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할머니 집 근처를 지날 때면 반갑게 달려나오실 것만 같다. 나는 할머니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할머니와 작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가끔 떠올린 탓이었는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만났을 때 제목이 건네는 위로를 먼저 받았다. 그리고 궁금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겨울은 작별하는 계절이다. 나무는 제 몸을 풍성하게 해주던 잎과 작별하고 동물은 활발한 활동을 뒤로 하고 겨울잠을 자거나 생존하기 위해 은둔생활을 시작한다. 작별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 시간인 겨울을 배경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성근 눈이 내리고 우듬지가 잘린 나무의 단면에 하얗게 빛나는 눈송이들이 내려앉는다. 별판에 서 있던 주인공 경하는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와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맞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보이는 무덤들 사이로 걸던 경하는 어느 순간 땅에 고인 물을 느낀다. 자작자작 났던 물은 순식간에 발등까지 밀려왔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별판은 바다였다. 눈이 내리는 어느 해안가에서 경하는 무덤들을 목격한다. 바닷물이 더 밀려오기 전에 물에 잠기기 시작한 무덤들은 어쩔 수 없어도 무덤 위쪽 땅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덤은 너무 많고 경하는 혼자이기에 어쩔 줄 모르는 채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검은 나무들 사이를 달렸다. 꿈이었다.

2014년 여름에 경하가 꿔던 꿈이었고, 이 꿈은 이후 내내 경하의 뇌리에 남아 무언가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경하는 그 도시의 학살에 관한 책을 낸 작가였다. 경하의 꿈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관통하며 과거의 삶과 사람에 대한 작별이 갖는 의미를 질문하는 상징이 된다. 책 속의 작가로서 경하의 소설

은 한강 작가의 전작인 『소년이 온다』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경하는 책을 낸 이후 악몽과 불면으로 가득한 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경하의 상태는 5월의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낸 후 한강 작가가 경험했던 고통을 이야기한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책의 초반부는 소설이 아니라 기록처럼 느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책 속에 펼쳐지고 있지만, 한강 작가가 이전에 지은 책을 떠올리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진실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설이라는 형식에 기대어 있지만,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해 봄에 학살을 명령한 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중략)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죽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말을 잇다 펄떡 생각했다. 지금 그를 죽여야 하는 건가. 이게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옆을 돌아보자, 얼굴도 숨소리도 희미한 일행의 가냘픈 성냥개비가 오렌지색 불꽃을 뿜으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생생히 느꼈다. 그 성냥개비의 주인이 얼마나 어린지. 키만 옷자란 소년이라는 걸.

전작의 「소년이 온다」에 등장했던 소년과 이번 작품의 주인공인 경하가 함께 있는 듯하다. 전작을 내고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별하지 않고 5월의 광주에서 죽은 이들과 함께하는 한강 작가의 마음은 다음의 장면에서 경하를 통해 그려진다.

경하는 유서를 썼다가 지운다. “처음부터 다시 써”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서를 쓰고 지운다. “처음부터 다시 써. 진짜 작별 인사를, 제대로.” 물간에 빠뜨린 각설탕처럼 내 사적인 삶이 막 부스러지기 시작하던 지난해의 여름, 이후의 진짜 작별들이 아직 전조에 불과했던 시기에 ‘작별’이란 제목의 소설을 썼었다. 진눈개비 속에 녹아서 사라지는 눈-여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 인사일 순 없다.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아니 유서만이 답을 수 있는 내용으로 소설은 전개된다. 자기 삶의 무게 앞에서 치열하게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 있다는 듯.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비극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글의 형식은 유서밖에 없다고 작가는 생각했던 것일까?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경하의 소설은 시작되었다.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눈처럼 사라지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붙잡으려 했다. 유서 같은 소설을 완성했어도 그것은 결코 마지막 인사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 소설은 전작인 『흰』을 떠올리게 한다. 눈과 여자의 이야기, 아주 짧은 소설이지만 시집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간이 많아서 천천히 읽어야 했던 소설이다. 『소년이 온다』와 『흰』을 읽었기에 경하가 꾸는 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경하의 꿈은 죽은 이들에 대한 애도이며 아직도 가시지 않는 아픔이자 그들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작가로서의 소명이 아닐까? 오랫동안 내리는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검은 나무들과 파도가 휩쓸어버리는 죽은 이들의 뼈들과 묘지를 등지고 더 늦기 전에 능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하의 꿈. 사그라드는 눈송이와

소멸을 향해 달려드는 과도에 짓눌리는 꿈은 시대의 무게였을 지도 모르겠다.

경하는 친구 인선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꿈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자고 한다. 그 뒤로 서로 바빠서 진행할 겨를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 경하는 그 꿈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지 말자고 인선에게 말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렀고 경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 인선을 만난다. 인선은 목공 일을 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잘려 나갔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인선의 말에 경하는 인선이 줄곧 경하와 약속했던 프로젝트와 꿈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인선이 경하를 부른 것은 혼자 진행했던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굶어 죽는 자기 앵무새 ‘아마’를 돌봐주기 위해 제주도에 가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리고 경하는 바로 제주도로 출발한다.

인선의 어머니는 농구를 자주 보셨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집이 외떨어진 곳에 있어서 일이 없을 때 적적해서 농구를 보셨다고 했다. 마흔 지나 인선을 낳은 인선의 어머니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에서 삼촌과도 같은 인물이다. 인선의 어머니는 7년 7개월의 긴 학살 기간을 버티고 이후 죽은 사람들과 생존자들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던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열일곱 살 이모만 당숙네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자매 둘이 마을로 돌아와, 오후 내내 국민학교 운동장을 헤메다녔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여덟 살 여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중략) 엄마는 이모 소맷자락을 붙잡고, 질끈 눈을 감고서 매달리다시피 걸었대. 보라고, 네가 잘 보고 얘기해주라고 이모가 말할 때마다 눈을 뜨고 억지로 봤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 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인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인선은 친척이 별로 없는 집안이 그저 유난히 엄마 형제가 적은 거로 생각했다. 제주의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으니까 자신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그럴 거라고 했다. 아주 오랫동안 제주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섰, 속숨허라이.”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용히 하라는 말인데 험난했던 시기를 겪고 살아남은 이후에도 ‘아이고 사건’과 군사정권을 연이어 거치며 사회적으로 제주 4.3사건을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에 걸쳐 7년 7개월 동안 일어났고, 추정하기로는 9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으며, 제주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도 다루듯이 대구, 경산, 목포에 갇힌 제주도민들이 학살된 거대한 비극이었다.

폭설에 시달리며 경하는 인선의 집에 가려 한다. 넘어지며 휴대전화도 놓치고 몸

도 상하고 추위에 발의 감각이 없어지기도 했다. 인선과 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덩불을 헤치고 불빛이 있는 인선의 목공방에 도착한다. 경하는 인선의 흔적을 마주한다. 인선의 작업물을 본다. 그리고 ‘아마’를 구하기 위해 새장 문을 열지만 ‘아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경하는 따스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아마’를 땅에 묻게 된다. 인선의 아버지가 인선에게 말했던 “속셈허라”를 생각하며 아픈 몸을 부여잡고 인선의 방에 가 잠을 청하는 경하는 의식이 끊어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인선을 생각한다.

2부는 밤사이 악몽에 시달리고 일어난 경하가 아마를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실적인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는 한강 작가 특유의 문체가 펼쳐진다. 2부에서 인선의 집에는 아마도 있고, 인선도 있는 과거의 시점이다. 책의 제목은 2부에서 등장한다. 인선이 경하에게 우리 프로젝트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고 경하가 답한다.

“작별하지 않는다.”

인선은 이어 묻는다.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작별하지 않는 것인지. 완성되지 않는 것인지 작별이. 작별의 기한을 미루는 것인지. 경하는 답하지 않는다. 이후 인선과 경하는 대화를 나눈다. 주로 인선의 어머니 이야기다. 2부에서 인선의 어머니는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며, 희생자 유가족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했던 강인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총소리가 들렸던 팽나무 아래로 달려가 보니 일곱 명이 죽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할아버지였어. 가호마다 주민 명부를 대조한 군인들이, 집에 없는 남자는 무장대에 들어간 걸로 간주하고 남은 가족을 대살代殺한 거야.

당시의 제주에서는 대살이 있었다. 대신 살해한다는 뜻이다. 집에 없는 남자는 무장대가 되어 한라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무장대 대신해서 남은 가족을 살해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주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학교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군경 직계가족을 선별해서 뺀 후에는 끔찍한 총살이 이어졌다. 학교 혹은 백사장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다.

엄마는 나를 죽여가는 동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 언니라고 믿을 때가 더 많았고, 어떨 때는 낯선 사람으로 여겼어. 자신을 구하러 온 모르는 어른. 무서운 악력으로 내 손목을 붙잡고 엄마는 말했어. 구해줘서. 해가 저물면 엄마는 더 깊은 혼란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 바깥이 얼마나 춥든, 걸친 옷이 얼마나 얇든 상관하지 않았어. 말릴수록 땀범벅이 되어 몸부림치는 엄마와 한 몸이 되어서 씨름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근육이 거의 사라진 노인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셀 수 있었을까? 씨름 끝에 겨우 이부자리에 누이고 그 옆에 누워 눈을 붙이면, 그 사이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내가 잠들려는 순간마다 흔들어 깨웠어.

제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의 우리가 잇는다면 비슷한 역사적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의 아픔이다. 이 상처를 잊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뜻일까? 3부의 제목은 「불꽃」이다. 1부의 촛불처럼, 3부에서도 촛불이 꺼지자 인선의 말소리가 사라진다. 하지만 경하에게는 불이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인선을 생각하며 경하는 숨을 들이마시고 성냥을 그었다. 녹녹해서 불이 붙지 않았기에 한 번 더 내리쳤는데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더듬어 쥐고 다시 그어서 불꽃을 쫓게 했다. 경하는 인선에게 말한다.

아직 사라지지 마. (중략). 하지만 네 손이 잡히지 않는다면, 넌 지금 너의 병상에서 눈을 뜬 거야. 다시 환부에 바늘이 꽂히는 곳에서. 피와 전류가 함께 흐르는 곳에서.

경하의 불꽃은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 처럼 생명력을 품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지독하게 끔찍하고 아픈 일과 그 한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 같은 불꽃이 꺾인 성냥개비에서도 피어올랐다. 부러지고 상처 난 몸에서도 불꽃은 일어난다. 의지만 있다면.

의지는 기억할 때 생겨난다. 잊지 않아야 할 사람과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의미를 살려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는 한강 작가의 말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과거와 작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들린다. 아마도 나는 다 펼치지 못한 할머니의 생애에 담긴 이야기와 받은 사랑에 대한 예의를 아름다운 불꽃으로 살려내기 위해 할머니와 작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군장병부 장려상

도서명 : 면도날

송*혁

입대를 앞두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목표를 설정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만들기, 경제 공부, 독서 습관화, 그리고 전역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렇게 여러 목표를 설정한 채로 나는 입대했다. 앞서 언급한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전역 이후,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어떤 자세를 바탕으로 향후 내게 주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와 같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만의 선택을 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가치관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이상과 현실 사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해답을 찾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서머릿 몸의 3대 장편 소설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작가가 직접 작품의 등장인물이 되어, 각기 다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인물을 관찰하면서 인물들과 연루된 일들을 과거 회고 방식으로 묘사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여러 인물의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정답인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며,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아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끔 유도한다.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래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 공군 파일럿으로 참전하며, 전쟁 중 자신의 전우가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뒤, 깊은 회의감과 함께 삶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는다. 래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과는 현실은 뒤로 한 채 여러 국가를 떠돌아다니며 철학과 종교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탄광에서 막노동도 해보고, 농장에서 일도 해보는 등,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밟고자 하는 쉬운 길과는 사뭇 반대되는 행보를 취한다. 이에 약혼녀인 이사벨은 래리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와 함께 상류층으로서의 생활을 누리길 바라지만, 래리가 자신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보다 현실을 선택하며 부유한 사업가인 그레이와의 약혼을 선택한다. 그렇게 이사벨은 자신이 바라던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래리를 잊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반면 래리는 이사벨의 바람과 달리 계속해서 유럽과 인도를 여행하며 철학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후에도 그는 프랑스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노동과 독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인도에서는 요가와 영적 수행을 배우며 자신의 질문에 대

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 간소하고 조용한 삶을 이어간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상이 나타난다. 인간의 존재 이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다소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는 래리, 래리와 달리 자신의 물질적 욕망과 현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첫사랑 역시 포기하지 않는 야망 있는 여자 이사벨, 그녀와 같이 상류층으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허영심에 심취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엘리엇, 불쑥 나타나 래리를 뒤흔들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던 소피.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작가는 작품을 진행해 나가면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실제처럼 인물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열심히 관찰하며, 열심히 자신의 과거를 회고한다.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독자들이 여러 인물의 모습을 맞이하게끔 하고, 그들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게끔 유도한다. 작가는 이를 위해 자신을 소설의 서술자이자 등장인물로 설정한다. 그리고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일종의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면서 이야기 속 인물들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취한다.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지금껏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소설을 시작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글을 소설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지 마땅히 붙일 다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도입부이다. 작가는 작가 자신이 독자들이 삶의 목적을 찾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인물들에 대해 서술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처음 소설의 도입부를 읽어 나갈 때 의아했다. 본격적으로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 설정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투자하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작품을 읽어 나갈수록 이것이 작가의 의도에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알고 나니 이해가 갔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만의 삶을 찾아 나가길 바랐던 것이다. 삶에 대해서 작가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길 바랐던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인물을 설정하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 안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 면도날 위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나의 몫이다.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 인물이 기억에 남았다. 우선 첫 번째로 속물 장사치인 엘리엇을 꼽을 수 있다. 상류층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삶이고 그게 곧 삶의 목적이었던 엘리엇은 정말 속물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물질과 명예만을 좇는 그에게 정이라는 것이 일절 없을 것 같지만, 대공황 시절, 그레이의 회사의 몰락으로 이사벨 가족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에게 기꺼이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땅을 내주어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살도록 도움을 마련해주었고 이사벨에게 큰 유산도 남겨주었다. 엘리엇은 사교계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사람이

었다. 어쩌면 속물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던 사교계 사람들은 정작 그의 존재를 기억해 주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교계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사교계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셈이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인물은 이사벨이다. 이사벨은 특히 작중 작가가 유일하게 일침을 내려놓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사벨을 향한 일침은 작중 유일하게 작가가 직접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다. 이사벨과 같은 삶보단 다른 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작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사벨은 돈도 포기할 수 없고, 첫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다.

작가는 래리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내면의 근원적인 궁극성에 대한 열정이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에 너무 현실만을 바라보며 조금해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엘리엇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나치게 손익을 따져가며 속물적인 마음을 지나치게 갖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이사벨과 그레이 부부를 통해 물질적인 요소만을 좇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뇌를 유도한다. 작가이자 등장인물인 서머셋 모에 의해 서술되고 있는 여러 인물 중 악역은 없었다. 다 저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있고,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이해가 가는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 모은 한 인물에게 치중하여 가치를 차등하게 분배하지 않고, 모든 등장인물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존중하고,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물질적인 삶을 좇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이야말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정신적인 구원도, 물질적인 풍요도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여러 가치 중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꽤 소요될 듯하다.

작품을 모두 읽고 난 후, 이 작품의 제목이 <면도날>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작가는 이 작품을 마무리 지으면서 ‘인생의 작은 결단조차도 면도날을 넘어서듯 비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근원적인 열망을 자극하며,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점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든, 현실은 뒤로 하고 내면에 정신적 구원을 추구하든, 정해진 답이란 것은 없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힌두교 경전 중 하나인 카타 우파니샤드에는 “면도칼의 날카로운 칼날을 넘어서기는 어렵나니. 그러므로 현자가 이르노니, 구원으로 가는 길 역시 어려우니라.” 라는 구

절이 있다. 우리는 면도날의 칼날 위에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에 의해 자칫하다 면도날에 베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신적 구원을 찾는 길도, 물질적 풍요를 찾는 길도 모두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저 나만의 방식대로, 나만의 가치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인 나에게 이 책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어쩌면 군 복무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평생의 과제일 지도 모른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며 살 것인지 그에 대한 해답을 아직 확실히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 메시지 중 한 가지만큼은 내게 확실히 와닿은 것이 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것 역시 그것대로 가치 있는 삶이니,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전역 이후 삶의 방향성이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각기 다른 구원이 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풍요를 구원으로 삼을 수도, 누군가는 정신적 통달을 구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던,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어 나가던 그것에는 정해진 정답이란 없다. 나만의 정답을 찾고 나만의 구원을 찾아 나만의 선택을 이어 나가면 된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구원을 차차 찾아나가면 된다. 옳은 삶의 방식이란 없고, 틀린 삶의 방식 역시 없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다. 이에 대해서 나만의 해답을 찾으면 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 역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남들 따라 평범하게 살고, 평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을까 고민하다, 전쟁 중 전우의 죽음을 목격한 후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여러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래리의 모습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 없이 고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쩌면 작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란 래리의 방식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래리는 남들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진정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정신적 탐구를 선택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했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성공했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당연히 다를 테고, 그렇기에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기에, 남들 살아가는 방식 따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냥 정답이 아니다. 작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날카로운 면도날 위에서 있는 청춘들에게,

면도날에 베여 피 몇 방울 흘리는 것쯤이야 별일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딪혀보고, 베여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작은 결단조차도 면도날을 넘어서듯 비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작품은 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근원적인 열망을 자극하며, 작가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점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제목이 면도칼이 아닌 면도날이 아닐까 싶다. 면도하다 보면 베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금방 아문다. 살짝 베여 피 몇 방울이 흐르고 그 상처가 쓰라리지만,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면도날처럼, 인생을 살다가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툭툭 털어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인생의 고난 앞에 무던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작가의 말이 어느 순간 불쑥 내게 다가왔다. 래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삶에 대한 의문에 각자만의 답을 내리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답을 가진 채로 살아가면 된다. 평범한 삶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세상을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작가는 이 작품을 써 내려간 것이지 않을까 싶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원하는 바를 얻으며 마무리된다. 엘리엇은 사교계에서 명성을, 이사벨은 막대한 재산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확실한 지위를, 그레이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직업을, 래리는 행복을 얻었다. 작가는 대중들이 성공담을 좋아한다는 특징을 언급하며, 이 작품의 결말에 대해 만족할 거라고 얘기하며 마무리 짓는다. 인물들이 얻은 결과물은 모두 달랐다. 그렇지만 작가는 이를 성공담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성공의 결과물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이다. 그저 남들을 따라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나만의 가치를 찾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 삶의 목적을 확립해 나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작품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일부 인용하면서 작품에 대한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 무언가에게 영원한 존속을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존재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리석은 거예요. 변화가 존재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우리 철학의 전제로 삼는 것이 현명하죠.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순 없어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니까. 하지만 다른 강물에 들어가도 그것 역시 시원하고 상쾌한 건 틀림없어요.” 래리는 몸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래리의 깨달음은 작가에게도,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렇기에 영원을 추구하려다 보면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된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다 보면,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나만의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삶의 방식, 나만의

선택 기준, 그리고 나만의 가치. 이를 찾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면도날>은 입대 전 세웠던 나의 목표를, 내 주변과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앞으로의 삶을 이어 나갈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제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만의 선택을, 나만의 가치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현대 사회가 매정하고 싸늘하다고 한들, 과감하게 부딪혀볼 것이다. 내가 내린 선택의 가치는 나만이 알 테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은 분명 존재할 테니까 말이다.

군장병부 장려상

도서명 : 별새

강*별

별새 : 날아다니는 힘이 강하며, 벌처럼 공중에서 정지하여 꿀을 빨아먹는 가장 작은 새

2년 전에 읽고 오랫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지내오다 이천시장기 독서감상문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시간 나의 책장 안에 묵혀둔 일기장을 꺼내 보는 기분으로 다시금 이 책을 펼쳤다.

책의 내용은 꽤나 심도 있었다. 그러나 결코 지루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심도가 깊은 만큼 인물들의 감정 하나하나 섬세함을 느낄 수 있고, 마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마냥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과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여행을 갔었는데, 기념품샵에 ‘마트료시카’라는 러시아 전통 인형이 생각났다.

하나를 꺼내면 작은 마트료시카가 또 나오고, 그 마트료시카를 열면 더 작은 마트료시카가 나온다.

그렇게 열고 열다 보면 비로소 새끼손톱만큼의 크기인 마트료시카의 본판을 볼 수 있었다.

이 마트료시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덤덤해 보이는 주인공 은희일지라도 껍데기를 벗겨내고 벗겨내다 보면 결국은 작은 아이, 한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과 우리 사회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양성평등의 문제, 성별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크고 예쁘게 포장되어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마트로시카가 실은 아주 작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벗겨내지 않고 크고 화려한 채로 두어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말이다.

1994년도의 강북과 강남의 차이.

쉽게 말해 부와 권위의 차이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다.

가부장적인 아빠는 바람을 피우고, 무관심한 엄마와 공부는 잘하지만 폭력적인 오빠, 그리고 강북의 날라리로 유명한 언니.

은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 그저 살아갔을 뿐인데 조금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그렇게 돌고 돌아 방황하는 은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는 모습이 마냥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책 속의 배경은 1994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음이 한탄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엄마가 밥그릇 위에 올려준 고기 한 점이 라면 그 모든 것이 스프르 녹아내리고 용서가 되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정의가 슬펐다.

우리의 최고의 안식처는 ‘집’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그 모든 행위는 결코 합리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은희에게 동정하고 또 동정했다.

공감이 갔던 부분은 더 강렬히 동정하고 위로했고, 공감되지 않더라도 공감하고 싶을 만큼 내 신경은 온전히 은희에게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선 은희에게 위로도 받은 것 같다. 알게 모르게 무시 받았던 나의 모든 불평등한 경험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처음 군대에 입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나의 모든 친인척, 가족, 친구 모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를 바라보았던게 기억난다.

걱정을 하는 이유는 다수가 남자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간부가 되어 지휘통솔을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무시도 많이 받을테고 여군 특성 상 소수이다보니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예전에 이 말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임관 직후 여성 간부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례를 듣고 보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아, 우리는 여군이라는 명칭 아래 정말 말도안되는 여러 소문의 대상이 비교적 쉽게 될 수 있겠구나.’

또, 여성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고 힘든 훈련은 못하겠거니 자체 판단하며 애초에 시키지 않는다던가 비아냥 거리기 일쑤라는 한 커뮤니티에 글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말과 글을 전해 들으면서 내 기준으로는 내가 여성이기에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화도 났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겪을 수 있거나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여자라서 이렇게 해야하고, 남자니까 저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정말 싫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조건 상의 분명한 차이점은 어쩔 수 없으나 편견과 뒤엉킨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준은 언제쯤 완벽히 평등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여군, 남군이라는 표현이 아닌 모두가 ‘군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체력을 더욱 끌어 올렸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나서서 하며, 모두를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참된 간부가 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 ‘상식만천하 지심능기인’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많이 있으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고.

이 말이 와닿았던 이유는 앞으로 군 생활을 쪽 하면서 나의 역량을 양껏 발휘하게 될 텐데, 나의 선임들과 부하들에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섬세하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주저하지 않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님을 항상 인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그리고 책을 거의 다 읽어갈 때쯤, 영지가 이런 말을 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손가락은 움직인다고.

즉, 나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인드로 삼고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별새는 1분에 심장이 1200번 뛰한다고 한다.

그리고 1초에 날개짓을 80회를 하는데, 만약 날개를 움직이지 못하면 10초도 되지 않아 죽는다고 한다.

별새의 날개짓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 숫자 8이 보이는데, 이는 곧 뱀비우스의 띠를 연상케 한다.

바로 ‘무한대’ 라는 뜻이다.

끊임없이 순환하고 순환하는 인생에서 나의 길을 잘 찾아 걸어가 앞으로의 군생활을 하면서 모두를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간부라고 해서 이를 악용하지 않고 언제나 먼저 나서는 솔선수범한 자세를 보여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군장병부 장려상

도서명 : 갈매기의 꿈

이*목

짧어서 고생은 왕창 사자! 라는 것이 나의 인생관이다. 조금이라도 더 짧아서 고생한 대가는 그만큼의 달콤한 결실을 보기 때문이다.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서 주인공 조나단은 갓은 고생을 자처한다. 그에게 있어 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서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상한 빵 쪼가리나 찾아다니는 무리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 독하게 나는 연습을 했고, 새로운 비행술을 시도했다. 그는 한계를 끈기 있게 극복해냈고, 간절히도 꿈꾸어왔던 자유와 비상의 완전한 관념에 이르렀다.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던져주는 상한 빵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또한 높은 바람을 타고 들어간 내륙에서는 달콤한 곤충도 맛볼 수 있었다.

진급을 원하는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가? 더 높은 가치를 좇는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꿈을 택하든 온갖 고생은 다 겪어야 한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 또한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조나단은 자유를 향한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렇다면 그 고행길은 어땠는지, 그 길의 끝에서 어떤 드물고 싱싱한 물고기 떼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조나단의 비행회랑을 따라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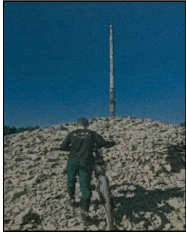
책의 첫 페이지에서 조나단은 홀로 등장한다. '수천 마리의 갈매기들이 먹이 싸움을 벌이는 사이 조나단은 혼자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에 그는 갈매기들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절벽으로 추방당한다. 그럼에도 조나단은 고독을 벗 삼아 즐기치게 비행술을 익혔다.

그렇다.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 고독만큼 친한 벗은 없다.

러한 삶의 태도는 장교인 나에게 더욱 와 닿는다. 흔히들 지휘관은 외롭다고 한다.

이순신 제독님께서도 『난중일기』에서 '홀로', '혼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며 고독한 심경을 드러냈다. 운이 좋게 전 속부관 시절, 장군님을 모시면서 이런 지휘관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교적이신 장군님도 아주 중요한 때에는 참모진들을 모두 물리시고 온종일 홀로 사색에 빠지셨다. 최종 결심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지휘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장교는 가까운 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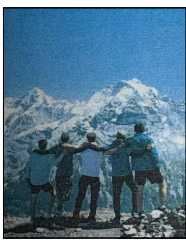


L. 홀로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나는 솔로 플레이를 즐기는 편이다!

홀로서기가 군인에게 의미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혼자 걷는 길이야말로 진정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전우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유명한 미군도 구조작전이 위험하다면 작전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결국 전 우는 적진에서 혼자가 된다. 아무도 대신 싸울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 군인이라 면, 장교라면 이러한 위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홀로 싸워야 하는 위기에 대비하 여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해져야 한다. 조나단이 외로운 연습장에서 비행술을 연마하 고 한계를 뛰어넘었듯이 말이다.

고독과 더불어 조나단이 견뎌내야 했던 것은 배고픔이었다. 먹이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히 나는 것을 사랑한 대가였다. 조나단의 부모는 잘 먹지 않아 비쩍 말라버린 아들을 나무랐다. 조나단은 뼈와 깃털뿐이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배는 고프지만 행복하게 나는 연습을 계속했다.

배고픔과 씨름하며 자수성가한 인물은 널렸다. 빵을 훔쳐 먹었다고 전해지는 나폴레옹, 공짜 식사를 먹으 려고 11km를 걸었던 스티브 잡스. 모두 배고픈 시절 을 겪었다. 하지만 헝그리 정신에서 불후의 위인은 탄 생했다. 나도 한때 배가 고파 부엌에 몰래 설탕을 한 움큼 먹으며 배고픔을 달랠던 유년시절이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고3 이후로 경제적 지원은 없을 거라고 암시하셨다. 그것이 은연중에 나의 독립 심을 자극하였고, 나는 학비가 들지 않는 사관학교로 진학한다.



L. 필자는 왼쪽에서 두 번째. 생도 4학년, 동기생들과 떠난 유럽 자유여행. 라인강 종주로 몸무게는 63kg까지 빠졌다. 고등학생 이후로 가장 말랐던 때다. 그만큼 배는 고포만, 너무나 행복했다.

이후에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일찍이 이혼하여 지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 시고, 나는 우울증을 앓으며 아픈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매달 수십, 수백만원을 지원했다. 여동생까지 돌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봉급이었다. 전역이 맞는 것일지도 몰랐다. 동기, 선후배 할 것 없이 급증하는 5년차 전역에 나도 고민을 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군인의 길에 후회는 없었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삶에 포기란 없었다.

한편, 나는 중위 이후로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을 고집해오고 있다. 적당한 배고픔이 젊고 건강한 신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덕에 매년 실시하는 체력검정에서 꾸준히 우수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3km 달리기 기록은 최근 5년 동안 점점 빨라지고 있다. 깡마른 몸집과 민첩한 몸의 상관관계. 그렇다. 뚱뚱한 야생동물은 극히 드물 듯, 그들의 몸매가 날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자유로운 야생동물은 굶주림 속에서도 날쌔 힘을 과시한다. 조나단도 배가 고팠지만 속도는 힘이자, 환희였기에 날갯짓을 멈출 수 없었다.

조나단이 굶주린 배로 힘든 사투를 벌일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이미 한번 속도 신기록을 돌파하다가 바다에 처박혀 날개가 찢어졌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의 중압감과 추락의 공포를 극복하고, 기록을 깨부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다. 설령 그것이 한계를 시험하는 죽음의 지대일지라도 말이다. *‘조나단은 한계 속도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만일 이 같은 속도에서 날개가 펼쳐진다면 몸뚱이가 수천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낙하를 감행했다. 다른 갈매기와 충돌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죽음을 부르는 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K2에는 데스존(Death Zone)이 있다. 8,000m 이상의 고지대를 지칭하는 데스존에서는 희박한 산소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간의 몸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 사망한 이들의 시체는 길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는다. 해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만, 사람들은 정상으로 향해 오르고 또 오른다. 왜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으며 산을 오르는가? 그에 대한 힌트를 한계 돌파에 대한 조나단의 생각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죽음조차 무릅쓰는 이유로 ‘차원 높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일에서 얻는 순수한 행복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자유와 비상의 완전한 관념! 조나단은 이런 것들이 참된 삶의 이유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조나단 시절은 두려움이 삶을 그토록 짧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극복해냄으로써 참으로 길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조나단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우리에게 끝없이 도전하는 인간정신을 일깨워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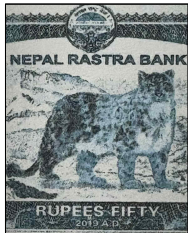
나도 조나단이 걸었던 길과 비슷하게 고독, 배고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취의 자쁨을 누려본 적이 있다. 2년 전, 홀로 떠난 히말라야 여행에서였다. 눈표범을 마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산병으로 위험했던 고비가 있었지만, 마침내 영원한 꿈이자 동경이었던 설산에 올랐다.

그 중에서 나는 해발 5,000m의 ‘체르고리’를 품은 랑탕 트레킹을 선택했다. 4천 미

터급 다른 트레킹에 비해 비주류였지만 5천 미터의 봉우리'라는 타이틀이 나를 매혹했다. 또한 체르고리는 입산 허가나 별도의 등반장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순전히 혼자서, 그것도 맨몸으로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보고 싶었다.

점점 신이 나서 냅다 오르다 보니 남들 4일 걸리는 일정을 이틀 만에 주파했다. 해발 4,200m의 강진곰파라는 마을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날 1등으로 정상을 찍겠다는 결의에 새벽 2시 반에 출발했다. 그렇게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이상한 늑은 나뭇에 없었다. 철저히 혼자가 된 나에게 손에 꼽는 암흑 길이 펼쳐졌다. 공포심이 극에 달한 건 이상한 계곡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네팔의 겨울, 해발 4,300m에서 물이 흐른다고? 여기 계곡이 있어도 되는 거 맞아?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니 적적했을 때보다 더 무서웠다.

갑자기 어젯밤 산장에서 비치되어 있던 눈표범 (Snow leopard) 잡지를 본 게 후회스러웠다. 무게를 줄이려 숙소에 맡긴 다용도 칼 생각이 간절했다. 예전이라면 부 처님, 하느님, 오만 생각이 먼저 들었을 텐데 서른에 접 어드니 등산스틱이 떠올랐다. 가방 옆에 꽂아둔 스틱을 최소한의 무기로 꺼냈다. 보다 자유롭게 휘두르기 위해 병어리 장갑에서 손가락 장갑으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속절없이 눈표범 밥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 을로 돌아가는 것도 싫었다.



L.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로 알게 된 눈표범, 사진은 네팔 50루피 속의 눈표범 초상. 작중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지'라는 대사와 함께 등장했다. (Beautiful things don't ask for attention) 자유로이 자연을 거니는 모습을 동경했지만, 랑탕에서는 상상 속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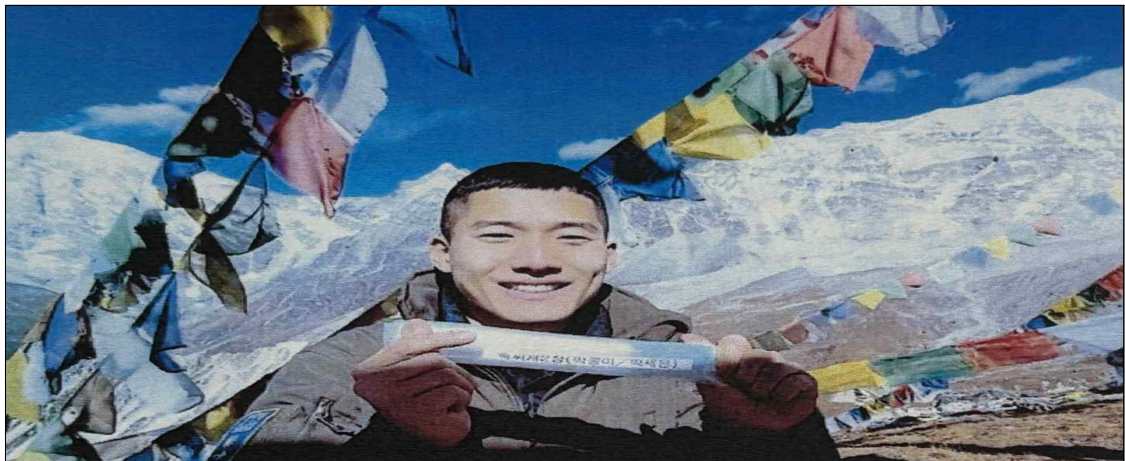
눈표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상을 100m 남짓 남겼을 때 고산병이 예고 없이 훑 찾아왔다. 머리가 하고 몽롱한 것이 처음 겪는 것이었다. 아 머 됐다 싶은 서늘한 느낌이라 덜컥 겁이 났다. 도전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것이 그토록 원했던 꿈의 끝?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정신 나갈 것 같은 두통에 그냥 두 눈을 질끈 감고 길 위에 누웠다. 그렇게 한 10분을 있으니까 머리가 조금씩 돌아갔다. 결심지점이었다. 이대로 내려갈 것인가, 계속 오를 것인가. NO-GO or CO?

내 대답은 'GO'였다. 두려움보다 5천 미터 한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다. 그런데 고산병에 식욕마저 없어졌다. 새벽부터 먹은 거라곤 1개를 미쳐 다 먹지 못하고 버린 초코바가 다였다. 배고프진 않았지만 무기력했다. 그래서 마지막 100m

가 무진장 힘들었다. 고산 다큐멘터리에서 조금만 걸어도 100m 전력질주를 한 것 같다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땐 다 허풍처럼 느껴졌다. 그런 굼벵이 속도로 어떻게 숨이 차냐 싶었는데 꺾어보니 조금 알겠더라. 한 발짝, 한 발짝 야금야금 오르는데도 심장이 쿵쿵쿵한 것이 박동이 좀체 잦아들지 않았다.

마침내 체르고리 저편의 다른 세계가 나타났다. 남사면에서는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았던 북쪽과 동쪽의 이웃 거봉들이 눈에 들어왔다. 랑탕 피봉, 랑탕 리, 그리고 시상팡마까지. 5천을 넘어 6,7천 그리고 8천 미터급 산군이었다. 초고해상도 TV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눈이 시리게 초현실적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르다 못 해 영영 터져 나왔다. 뒤늦게 북적이며 올라오는 등반객들을 피해 형형색색의 타르초 깃발 뒤에서 울었다. 꼭 참아왔던 무언가가 푹 터졌고, 그 어떤 동기부여 영상보다 저릿저릿했다. 드디어 고독과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냈다. 환희에 몸이 떨렸다. 그 하얀 설산에 이르렀던 때는 나의 인생관과 잘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가장 높이 오른 자, 가장 달콤한 삶의 정수를 맛보다!'



조나단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던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기쁨의 눈물도, 랑탕 트레킹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 내가 『갈매기의 꿈』 을 어떻게 손 에 쥐게 되었고,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했는지 약간의 팁을 여기에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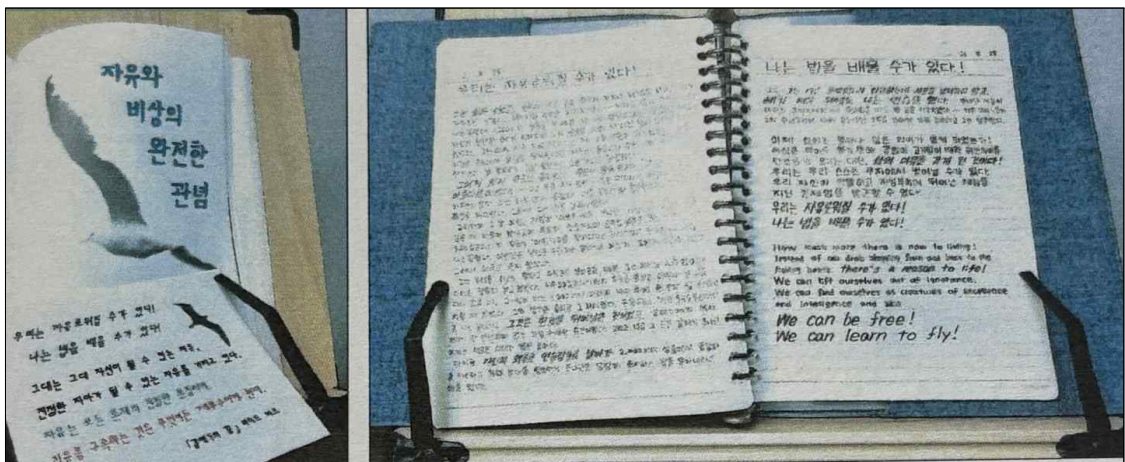
먼저 『갈매기의 꿈』 과의 첫 만남은 2018년, 이제 막 CP에 들어갔을 때다. 잠시 쉬는 동안 차가운 시멘트가 발린 지하병커 구석에서 책장이 눈에 띄었고 거기에서 은빛 무광택 표지를 두른 채 꽃힌 『갈매기의 꿈』 을 발견했다. 비교적 깨끗한 다른 책과는 다르게 약간 해져있었고, 책의 앞쪽에 국방부 마크가 있었다. 그 밑에는 '본 진중문고는 장병 정서함양을 위해 배부하는 도서임'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다. 장병정서 함양을 위한 목적이라면 절묘하게 잘 비치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GP는 불타는 청춘에게 있어서 자유와는 먼 공간이니 말이다. 철책에 더해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외딴 섬처럼 고립된 곳이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니 오죽 답답할까. 때마침 자유에 목마르던 장병들 사이에 그 같은 책이 놓여 있었고, 두께도 적당히 얇았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장병들이 많이 읽어 보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도 『갈매기의 꿈』을 읽었고, 첫눈에 반했다. 2번, 3번 읽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꽤 많이 읽어서 페이지마다 밑줄과 동그라미 투성이다.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 특히나 집중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위대한 갈매기의 법칙으로 불리는 조나단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절정이기도 하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대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그대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위대한 갈매기의 법칙이며, 존재의 법칙이다.” 조나단이 전하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한 자유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가장 사랑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조나단의 생각에 매료되었다.

나의 의식세계에 결정타를 날린 부분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새로운 지평선이었다. 글이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 꿈 노트라고 일컫는 공책에 정성 들여 책 1권을 필사한 것도 그제 처음이었다. 그렇게 읽고, 필사하는 동안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잡혔다. '자유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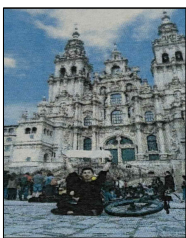


L. 초임 장교 시절, 일과 이후에 틈틈이 『갈매기의 꿈』을 읽고 즐거운 마음으로 필사했다.

그렇게 알게 된 자유. 자유로운 삶을 실천에 하나씩 적용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갈매기의 꿈』을 발견했던 바로 GP에서였다. 당시 내가 품었던 작은 꿈 하나는 특전사였다. 특전사에 가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야 했다. 그런데 지하병커라는 공간에서 체력단련은 어려웠다.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푸쉬업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땅바닥, 그리고 턱걸이도 더는 못할 때까지 당겨볼 수 있는 철봉 하나쯤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또 병커 옥상의 손바닥만 한 공간을 활용한다면 군장 뺀 걸음도 해볼 수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GP도 얼마든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거기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강해져 갔다. 이제 그 강함을 보일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TV를 통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알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군인 신분엔 여행은 무슨? 이라고 끝냈을 것이다. 다음에 가자고, 전역하고 가자고 넘겼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금만 방법을 찾아보자. 어디 안되는 이유라도 있냐? GP 철수 후 받은 위로휴가를 몽땅 털어봤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세어보니 9일. 앞뒤로 출입국 날짜를 빼면 순수 여행에 주어진 시간은 7일. 800km를 7일 만에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110km씩만 가면 되네! (그런데 피레네 산맥과 무수한 언덕을 통과하는 사이, 상승고도가 10km가 넘을 줄은 몰랐다.) 돈이 부족하다고? 텐트에서 자고, 가끔씩 값싼 숙소만 골라 서다니자. 밥은 바게트 빵을 뜯어 먹으면서 버티자. 그렇게 되는 대로 프랑스행 비행기를 탔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심지어 시간이 남아 세상의 끝이라고 믿어져 왔던 피스테라(Fisterra)로 갔다. 서유럽 끝자락에 위치해서였다. 결국 지하병커 책장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세상의 끝 자락까지 날 데려다주었다.



L, 순례길의 중점 산티아고 대성당. 자전거로 800km를 7일 만에 완주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이후로도 어떠한 제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한번 자유를 맛보니 다음번은 쉬웠다. 그게 바로 히말라야 이었다. 물론 산티아고 총각 때와는 달리 와이프를 설득해야 하는 관문이 있었다. 그런데 여보, 옆치 불고하지만 히말라야에 가도 돼? 뜻밖의 쏘쿨 아이스 대답이 돌아왔다. “응.” 와이프의 자유분방함을 알고는 있었는데, 나를

능가하는 자유로운 영혼일 줄은 몰랐다. 그 자유남편에 초 대인배 자유부인이었다.

조나단의 가르침은 단순히 여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군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부대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갈매기의 꿈』을 접하고 지난 6년 동안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스스로 선택한 부대에서 복무한 점이다. 인사라는 것이 가고 싶은 대로 가기가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소위 뽕뽕이라고 하여 정말 예상 밖의 뽑기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나만의 색깔로 군 생활을 써 내려가는 중이다.

향후 인사관리를 생각한다면 그다지 영양가가 없는 직책들도 있었다. 특전사 간다고 하니 진급에 안 좋다고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선택에 연연하지 않았다. '꼭꼭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보자'가 군 생활의 기준점이었다. 오히려 표창이나 진급에 큰 뜻을 두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의도치 않게 우수 탐팀, 선봉중대 등등의 영광을 잠깐이나마 누려 볼 수 있었다. 좋아하는 걸 열심히 파다 보니 자연스레 멋진 결과였다. 조나단이 먹이 사냥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지만 드물고 맛있는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당장 전역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훌륭하게, 만족스럽게 군 생활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조금 배가 고프습니다. 한계는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럼 저는 힘든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고진감래, 등가교환,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힘들은 항상 옳았으니깐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강한 군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2002, Freedom** (지금도 두루두루 쓰는 ID)
- 2013,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을 억울해 할 필요 없다. 나의 자유의지로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이 길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이 길을 걷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생도 1학년 중대 게시판 47)
- 2014, 하늘로 뛰어솟아 구름을 찬다, 검은베레 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 날자, 날아보자 (공수교육 때 생긴 특전사의 꿈)
- 2017, ULTIMATE FREEDOM (책 『Into the WILD』 7)
- 2018, 우리는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우리는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와 비상의 완전한 관념이다! (책 『갈매기의 꿈』 4, by 조나단 리빙스턴)
- 2019, 고민은 걸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마냥 깊어지지만, 나 그래도 다시 걸기로 마음을 굳게 다 잡는다. (세상의 끝에서 발견한 낙서 F)
- 2020,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메시지)
- 2021, 나는 불굴의 검은베레, 어떠한 역경도 극복한다. (특전부대 신조, 셋. 꿈꾸던 특전사 전입)
- 2024, De Oppresso Liber.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또 다른 꿈과 도전)